**<예림 지정연기 대본>**

-예림: 왜 연락 안 받아?

(은태,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)

-은태: 야 최예림, 너 여기서까지 이래야 해?

-예림: 연락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?

-은태: 아니, 내가 언제 연락을 안했어? 아깐 팀플 중이었잖아, 안되는게 당연한거야.

-예림: 나 너 여자친구야.

-은태: 그래.. 여자친구.. 근데 그걸로 다 정당화되지는 않아. 나도 이제 지친다.

-예림: 지쳐? 네가 어떻게 그래?

-은태: 예림아,, 너 이러는 거 다 폭력이야..

-예림: 뭐? 다 널 사랑해서..!

(회상씬 - 전남친한테 폭력당하는 여주/ -전남친: 다 널 사랑해서 그러는거야)

(예림은 예전 폭력적이던 남자친구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)

-예림: (횡설수설하며) 아니야… 그럴리가 없어…

(스스로 부정하는 예림)

(예림은 반지 없는 은태의 손을 발견한다.)

-예림: (자신의 반지를 은태에게 끼워주며) 너는 아무데도 못 가

(놀란 은태는 맥주캔을 놓치고,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간다.)

(머리채 뜯으면서 복잡해 하는 예림 (벽에 기대거나 쭈그리거나))